

# 일본 상대 문헌신화에 나타난 韓國像\*

- ‘천손강림신화’의 ‘韓國’을 중심으로

이 창 수  
(경희대학교)

## I. 머리말

‘상대(上代)’라는 말은 일본에서 사전적으로 ‘먼 옛날’, ‘태고’ 또는 ‘상세(上世)’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본역사의 시대 구분법으로는 문헌이 전해지는 시기인 ‘아스카(飛鳥)時代(6세기말~710)’에서 ‘나라(奈良)時代(710~784)’까지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 일본의 神道계에서는 ‘상대’의 범위를 ‘헤이안(平安)시대(794~1192)’를 연 간무(桓武)天皇까지로 설정하여 이 시기를 神이 군림한 시대라 하여 ‘가미시로(上代)’ 즉 ‘神代’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상대’를 일본어로 혼독하면 ‘가미요(上代)’라는 발음이 되어 ‘가미요(神世)’와도 통하므로 결국 이 시대는 신들과 관계가 깊은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일본 상대 문헌에는 신들과 관련이 깊었던 상대 일본인들, 정확히 말하면 황실을 둘러싼 일본 지식인들의 정신세계와 상상력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일본의 ‘상대’를 대표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알려진 『고지키(古事記)』(이하 ‘古事記’로 함.)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A00559)

사서로 평가받는 『니혼쇼키(日本書紀)』(이하 ‘日本書紀’라고 함.)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고대 야마토(大和)조정의 정통성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하에 성립된 문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견해이다. 흔히 어떤 전승이 문헌으로 남겨질 경우에는 특히 그 편찬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역사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면 정치적으로 강할 것일수록 거기에 다양한 이점이 있어도 그 문헌의 편찬목적이나 의도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 문헌에 등장하는 초두의 기록인 ‘신대(神代)’에 관한 기록 역시 문헌으로 남겨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색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이처럼 『日本書紀』의 ‘신대(神代)’와 더불어 『古事記』 ‘상권(上卷)’에 수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신화전승은 어디까지나 천황과 고대황실의 정통성을 뿌리박으려는 천황을 둘러싼 극히 제한된 범위의 씨족들의 정신세계의 결합을 말하기 위해 성립된 신화인 것이다. 그러한 성격을 갖는 문헌에 고대 한국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는 ‘가라(韓)’라는 용어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대 한국과 일본 간에 직접적인 인적·물적교류가 있었다는 흔적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이자 다른 어떤 민족보다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흔적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상대 문헌에는 ‘가라쿠니(韓國)’라는 호칭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신라, 백제, 고구려(高麗), 가야(加羅) 등 고대 한반도 내에 실재했던 국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대 일본인의 정신세계에 한반도라는 지역이 어떠한 형태로든 각인되어 있었거나 심지어 일상에서도 한반도와의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2001년 현 일본 天황이 자신의 탄생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대황실과 고대 한국계 이주민과의 관계를 天황 자신이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여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sup>2)</sup>

- 
- 1) 毛利正守, 『『日本書紀』「神代」』, 『国文学(第39卷6号)』, 学灯社, 1994. p.64.
  - 2) 毎日新聞(2001.12.23일자)천황탄생일 기자회견인터뷰에서 현 天황은 “日本과 韓國 양국간에는 옛 부터 깊은 교류가 있었던 것이 『日本書紀』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韓國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초빙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전래되었습니다. (중략) 이러한 문화와 기술이 일본사람들의 열의와 한국인들의 우호적태도에 의해 일본에 가져다 준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상대 문헌에 등장하는 ‘韓’이라는 글자가 고대 한국을 지칭하던 표현이었다는 것은 『日本書紀』고토쿠(孝德)天皇 4年 2月の 기사<sup>3)</sup>를 보면 알 수 있듯이 ‘韓’은 당시의 한반도내에 있던 고대국가를 상징하는 말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는 전체적으로 87건에 해당하는 ‘韓’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타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로 당시 일본의 국제교류가 대부분 한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반도 내의 국가들을 가장 가까운 타자로 인식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대 일본 지배층의 정신세계 및 문학적 상상력의 표현인 ‘신대’에 ‘韓’ 또는 ‘韓國’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신화의 전승과정 나아가 문헌으로 편찬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대 일본인 특히 황실과 가까운 중앙 지배세력의 정신세계에 한국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거나 또 한국과의 긴밀성을 의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 문헌의 신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승요소를 뽑아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연결한 소위 ‘기키(記紀)신화’를 주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 각 문헌에 특수요소로 여겨지는 독자적인 단편이나 특히 개별적인 신화요소에 등장하는 ‘韓’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는 국내의 일본신화학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개별전승요소로서의 ‘韓’은 양 문헌의 신화전개의 중요순간마다 등장하여 그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즈모(出雲)계의 신화의 주인공인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의 후손계보에 등장하는 ‘가라노카미(韓神)’가 그 예이다. 『古事記』상권에 ‘오토시노카미(大年神)’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 ‘韓神’에 대해서는 벼농사 및 농경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건너간 소위 도래계의 제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신으로서 하타(秦)氏와의 관련성을 밝힌 줄고를 제시한 바 있

그 후 일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간무(桓武)天皇의 생모가 백제 武寧王의 子孫이라고 『統日本紀』에 기술되어 있는 사실에 한국과의 관계를 느끼고 있습니다.(필자역, 下略)”라고 언급한 바 있다.

- 3)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 『日本書紀(下)日本古典文学大系 68』, 岩波書店, 1979, pp.305~307의 본문「四年 二月壬子朔、遣於三韓【三韓、謂高麗·百濟·新羅】學問僧。」 참조.

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신화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천손강림(天孫降臨)신화’의 강림지에 나타난 ‘韓國’을 중심으로 『古事記』상권 과 『日本書紀』신대권, 그리고 상대일본인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 『엔기시키(延喜式)』 및 『후토키(風土記)』 등의 고 문헌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韓’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신화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면밀한 문헌 해석과 기존연구의 비판을 통해 양 문헌의 성격과 편찬의도를 재검토하여 고대 일본인의 상상력에 담겨있는 한국상(韓國像)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천손강림과 ‘히무카(日向)신화’

일본 상대 문헌에 나타난 신화의 클라이막스라 하면 소위 ‘천손강림신화’를 꼽는데 이견이 없다.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공통적으로 기술된 이 신화전승은 지고신 ‘아마테라스(天照大御神)’와 ‘다카미무스히(高御產巢日神)’의 손자로 등장하는 ‘아마쓰히코히코호노니기노미코토(天津日高日子番能迺迺能命, 이하 ‘니니기’로 함.)’라는 신이 천신(天神)으로 상징되는 두 신의 명을 받아 천상세계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와 그 직계후손이 일본 최초의 통치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골자이다. 이 신화는 일본 황실의 정통성이 천상세계에서 비롯된 것을 말함으로써 천황에 의한 통치의 정당성과 그 유래를 설명하고자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신화이다. 이는 마치 고대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세계에서 역대왕조의 지배영역을 ‘천하(天下)’에 둔 것 처럼 일본천황의 통치역역 역시 동일한 개념의 ‘천하’에 두고 그 정통성을 천상세계에서 가져온 소재국주의 통치관을 반영한 이야기라는 점<sup>5)</sup>에서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신화요소는 일본신화연구의 핵심테마이기도 했다. 또한 천손강림신화는 『古事記』 및 『日本書紀』에 한정되지 않고 ‘이즈모(出雲)’를 비롯한 일본 각지의 『후토키(風土記)』에 수록된 전설 중에도 그 유래를 볼

4) 拙稿, 『『古事記』 및 『日本書紀』에 나타난 韓國像』, 『日本思想(第17号)』, 韓國日本思想史学会, 2009, pp.75~77.

5) 神野志隆光, 『古事記の世界觀』, 吉川弘文館, 1995, p.15.

수 있고 일본의 고 문헌이외에 한국의 신화전승, 예를 들어 단군신화, 가라국의 시조 수로왕, 신라의 박혁거세, 김알지신화 등 한국의 건국신화와도 유사한 구조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신화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국을 포함한 북방계신화의 전형으로 그 성격을 규정해왔다.

그렇다면 『古事記』 『日本書紀』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소위 천손강림신화의 범위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먼저 문헌비판적인 연구방법으로 전후 일본신화연구의 이정표를 제시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는 양 문헌의 공통분모를 비교하여 천손강림신화의 범위를 오쿠니누시(大國主神)의 국토양도신화이후에 전개되는 천손 ‘니니기’의 탄생과 그 신이 ‘히무카(日向)’로 강림하는 기사를 그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sup>6)</sup> 또 일본신화의 전승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신화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도 그의 저서에서 천손강림신화를 제15장으로 배치하고 제16장은 ‘니니기의 성혼’이라는 제목으로 구별하여 천손강림의 범위를 역시 오쿠니누시의 국토양도이야기 이후 ‘사루타비코(猿田彦神)’의 강림 안내담까지를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sup>7)</sup> 한편 『古事記』를 중심으로 신화의 흐름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적 스토리로 분석한 사이고 노부쓰나(西郷信綱)도 ‘야치호코(八千矛神)’ 이야기 이후, ‘히무카’의 천손 3대 이야기 이전까지를 역시 ‘천손강림’이라는 소제목 붙여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sup>8)</sup> 이처럼 일본의 신화학을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천손강림’을 상기와 같이 분류한 것은 이 신화전승이 전후에 배치된 타 신화전승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전승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이전은 ‘이즈모’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천손강림’ 이후의 내용은 남방형 해양신화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천신들에 의한 ‘이즈모’의 평정 후 천손이 ‘이즈모’로 강림하지 않고 ‘히무카’로 내려온다는 일본신신화의 최대의 모순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구분방식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편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본문(本文)’과 ‘일서(一書)’의 전승요

6) 津田左右吉, 『日本古典の研究(上)』, 岩波書店, 1948, pp.510~543.

7) 松村武雄, 『日本神話の研究(第三卷)』, 培風館, 1955, pp.506~606.

8) 西郷信綱, 『古事記の世界』, 岩波書店, 1971, pp.133~151.

소를 해체론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한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는 천손강림 신화의 전승구조를 ①천손강림의 전제로서 이즈모의 국토양도, ②천손강림, 그리고 ③천손과 고노하나노사쿠야히메와의 성혼이라는 3자로 구분<sup>9)</sup>하여 앞선 연구자들보다 다소 범위를 넓게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미시나는 강림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 문헌의 공통전승에 나타난 신화요소를 해체론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전승의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구분 짓는 독특한 연구방법을 제시해 지금도 천손강림신화연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천손강림’이라는 공통요소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방법으로 강림전승이 들어 있지 않는 타 전승과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편적인 설정을 배제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천손이 강림 후 지상세계에서 성혼이후 다음에 이어지는 3자탄생의 계보이야기는 같은 단의 모든 전승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 또한 ‘천손강림’답이 없는 특수요소나 각 문헌이 지니는 독자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것도 전체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아쉬움으로 남는다.

‘천손강림’신화가 지니는 또 한 가지의 의의는 소위 ‘히무카(日向)신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히무카신화’란 일본신화의 구성을 편의적으로 구분한 개념으로 천손 ‘니니기’가 강림한 지점인 ‘히무카’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신화를 일컫는다. 전승요소별로 세분하면 ①천손 ‘니니기’의 강림, ②천손과 고노하나노사쿠야히메(또는 아타가시쓰히메)와의 성혼 ③ 3자 출생담, ④‘야마사치’ ‘우미사치’의 형제이야기, ⑤‘도요타마히메’의 금실형출산담과 아이양육담으로 이어지는 전개를 통해 신대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역시 같은 무대가 진무(神武)천황으로 연결되는 매우 거대한 신화구성을 말한다. 일본의 비교신화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다카키 도시오(高木敏雄)는 일찍이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신화체계를 ‘다카마노하라(高天原)신화’, ‘이즈모(出雲)신화’, ‘히무카(日向)신화’라는 3가지 신화권(神話圈)으로 분류한 후 그 중 ‘히무카신화’를 주류신화권으로 보고 일본신화는 거기에 ‘이즈모신화’가 편입된 형태로 그려진 것이 특징이라 주장한 바 있다.<sup>10)</sup> 비교 신화학자 마쓰무라 다

9) 三品彰英, 『日本神話論(三品彰英論文集 第一卷)』, 平凡社, 1980, p.123.

10) 高木敏雄, 『日本神話伝説の研究』, 岡書院, 1927, p.27.

케오(松村武雄)도 앞서 다카키의 분류방법을 계승하여 양 문헌의 신화권을 3계통의 3가지 상이한 요소로 파악하고 ‘다카마노하라계신화’는 천손민족의 심적산물로 그 특색은 북방민족의 색조, 황조신의 정치적 관념과 태양신의 종교적 관념의 융합, 정착 보다는 이동생활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수직적 표상에 의한 신 관념을 특징으로 꼽았고 ‘쓰쿠시신화군’<sup>11)</sup>은 규슈(九州)지방에 근거를 둔 토족 소유의 해양신 숭배 및 그와 관련된 설화가 중심을 이루며 남방의 토속신앙 습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그 특색으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분류방법은 이후 일본신화학계에 그대로 계승되어 마쓰마에 다케시(松前健) 역시 ‘기키(記紀)신화’의 구조를 ‘다카마노하라’, ‘이즈모’, ‘쓰쿠시(내지 히무카)계’의 3신화권으로 분류하고 ‘다카마노하라’는 기내(畿内)지방을, ‘이즈모’는 지명 그대로 서일본의 ‘이즈모’를 포함한 ‘산인(山陰)지방’을, 그리고 ‘쓰쿠시’는 규슈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부지역인 옛 ‘히무카(日向)국’으로 실제지명을 비정하고 있다.<sup>13)</sup> 또한 요시이 이와오(吉井巖)도 ‘히무카신화’는 천손의 지상강림에서 ‘니니기’-‘호호데미’-‘우가야후키아에즈’로 이어지는 3세대의 이야기가 남부규슈지역을 무대로 전개되는 신화로 규정<sup>14)</sup>하는 등 문헌에 나타난 ‘히무카신화’는 말 그대로 ‘니니기’의 강림지를 현실적 지명으로 설정한 ‘히무카’를 무대로 후손들의 활약이 전개되는 신화이며 그 출발점으로 설정된 ‘천손강림’전승은 ‘다카마노하라신화’와 연결되는 매개적 성격을 갖는 신화로 규정되고 또 그 주 무대로 설정한 ‘히무카’는 자연스럽게 고대 ‘히무카국’ 지금의 남부규슈로 설정하는 것이 일본신화학계의 통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임의적인 단락구분 없이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기술하고 있는 『古事記』상권의 신화 구분방법으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단락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日本書紀』신대(神代) 제9단의 기술태도로 보면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日本書紀』신대에 나타난 소위 ‘히무카신화’의 구성을 재검토하

11) 마쓰무라 다케오는 ‘히무카계신화’를 ‘쓰쿠시(築紫)계신화’로 칭하고 있다.

12) 松村武雄, 『日本神話の研究(第一卷)』, 培風館, 1958, pp.124~125.

13) 松前健, 『日本神話の形成』, 塙書房, 1970, p.17.

14) 吉井巖, 『日向神話』, 『国文学(第23卷14号)』, 学灯社, 1978, p.157.

기로 한다.

### III. ‘히무카(日向)’와 『日本書紀』神代

이제 ‘히무카신화’의 구조를 양 문헌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자. 먼저 『古事記』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천손강림이야기를 기점으로 하는 소위 ‘히무카신화’는 별도의 단락구분 없이 문맥상 ‘오토시노카미’ 계보 기사 다음에 이어져 신화를 수록하고 있는 ‘상권’ 마지막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日本書紀』는 제2권에 해당하는 ‘신대하(神代下)’의 제9단 및 제10단에 걸쳐 있다. 신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日本書紀』의 ‘신대권(神代卷)’은 전체 30권중 제1,2권에 배치되어 있는데 ‘신대상(神代上)’은 모두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권인 ‘신대하’는 총 3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본문(本文)’과 ‘일서(一書)’를 병기하고 있다. 이 중 양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승이 ‘신대하’의 첫 부분인 제9단과 제10단 기사이며 그 중 제9단 ‘본문’과 ‘일서’에 한 부분으로 ‘천손강림신화’를 전하고 있다. 특히 제9단은 ‘본문’을 비롯하여 8개의 ‘일서’ 그리고 그 속에 또 다른 4개의 ‘이전(異伝)’이 병기되어 있어 총 13개의 이전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타 신화전승에 비해 이전 수가 가장 많고 또 이전간의 편차도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sup>15)</sup> 한편 『日本書紀』에 나타난 ‘히무카신화’를 보면 앞서 언급한 ①천손 니니기의 강림, ②천손과 고노하나노사쿠야히메(또는 아타가시쓰히메)와의 성혼 ③3자 출생담은 ‘신대하’의 제9단에, 그리고 ④‘야마사치’ ‘우미사치’ 형제이야기와 해신궁 방문 ⑤도요타마히메의 금실형출산담과 아이양육담은 제10단의 ‘본문’과 ‘일서’에 공통으로 기술된 내용이다. 따라서 『日本書紀』의 입장에서 보면 ‘히무카신화’의 범위는 제9단의 중간부분에서 제10단을 넘어 ‘신대’ 마지막까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제시한 <표 1>에 의해 『日本書紀』 제9단을 전승별로

15) 三品彰英, 앞의 책, p.122.



분류해 보았다.

<표 1> 『古事記』와 『日本書紀』神代 제9단의 전승비교

신화요소		古事記	『日本書紀』神代 (제9단)								
			本文	一書							
				1	2	3	4	5	6	7	8
국토양도	아마노호히 파견	○	○	-							-
	아메노와카히코 파견	○	○	○					○		-
	아지스키다카히코네	○	○	○							-
	국토평정	○	○	○	○						-
천손강림	니니기탄생	○	○	○	○		△		○	○	○
	아마테라스의 친손	○	○	○	○						
	다카미무스히의 외손		○	-	○				○	○	○
	천손강림	○	○	○	○	-	○	-	○		-
	사루타비코의 안내	○		○							-
아타정착	아타 이동 및 정착	×	○		○		○		○		
	고토카쓰 만남	×	○		○		○		○		
	아타쓰히메	○	○	×	○	○	×	○	○	○	○
	3자출생	○	○	×	○	○	×	○	○	○	○

상기 <표 1>에서 『日本書紀』신대권 제9단의 전체적인 흐름을 담고 있는 기사는 ‘본문’이다. 거기에는 ①아메노호히의 파견에서 시작되는 천신에 의한 위원중국의 평정과 이즈모에서의 국토양도이야기, ②니니기의 계보 소개와 히무카 강림, ③천손과 아타쓰히메와의 결혼담과 3자출생으로 마무리된다. 이 중 소위 ‘히무카신화’의 원점인 천손강림 이야기는 ②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9단의 ‘본문’과 ‘일서’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보편적 설정과 두 가지의 특수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보편적 요소

란 주인공인 천손 ‘니니기’가 ‘다카미무스히’의 외손이라는 점과 ‘아타쓰히메’의 3자 출산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두 보편적 설정은 ‘일서’제7과 제8에서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해 천손 ‘니니기’가 아타(吾田)지역에 도착하여 지역 토호의 딸인 ‘아타쓰히메’(또는 고노하나노사쿠야히메)와 결혼 후 다음 전승인 제10단의 주인공 ‘야마사치’와 ‘우미사치’를 낳는다는 것을 ‘일서’ 제7과 제8은 단순하고 압축된 계보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두 가지의 특수요소란 하나는 천손이 아타지역에 도착하여 ‘고토카쓰쿠니카쓰나가사(事勝國勝長狹)’의 안내를 받아 그곳에 정착했다는 기사로 ‘일서’제4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국토양도이야기’와 함께 천손의 ‘히무카’강림이야기로 ‘일서’제1에 해당한다. 특히 ‘일서’제1은 유사 강림 전승을 전하는 타 요소에 비해 ‘아타’로 이동한 후속기사가 없이 강림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日本書紀』神代 제9단은 보편적 계보기사와 복잡한 전승 그리고 각 이전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보편적 요소와 두 가지의 특수적 요소가 모두 결합된 기사는 ‘본문’과 ‘일서’ 제2, 제6의 세 가지 전승 뿐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제9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천손 ‘니니기’가 지상세계에 강림한 후 ‘아타’라는 지역에 도착하여 ‘아타쓰히메’를 만나 결혼하고 그 지역에 정착하여 후손을 낳았다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토양도’와 ‘천손강림’의 이야기를 결합시켜 제9단 ‘본문’으로 최종 정리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古事記』의 전승에 보이는 ‘야치호코’가 ‘고시(高志)國’에 가서 구혼을 통해 그 지역의 여인과 결혼을 통해 나라를 얻는다는 이야기와 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또 제10단에 등장하는 ‘야마사치’의 해신궁(海神宮) 방문이야기와도 유사한 모티브를 보여준다. 즉 ‘야마사치’가 해신의 딸과 결혼을 통해 해신의 주력을 받고 그 힘으로 지상세계를 복속한다는 이야기와 상통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세계에 가서 그 지역토호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그 지역을 복속하고 국토를 지배한다는 정치적 신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sup>16)</sup> 또한 제9단 ‘본문’은 이들 개별 전승요소가 모두 결합된 형태로 이미 여러

16) 中西進, 『神話力(日本神話を創造するもの)』, 桜楓社, 1991, p.165.

단계의 편집과정을 거쳐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오랜 시간이 경과해 온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 어느 소전승에도 볼 수 있는 보편적요소를 바탕으로 개별 전승이 갖고 있는 특수한 요소도 적절히 결합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전승과 새로운 요소가 편집과정을 거쳐 하나의 거대한 체계신화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천손강림’신화를 기준으로 보면 ‘히무카’로 강림하기까지를 범위로 삼고 있지만 『日本書紀』神代 제9단은 일단 ‘히무카’의 ‘다카치호(高千穂)’라는 지상세계로 내려온 천손 ‘니니기’의 최종 도착지가 ‘아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타’로의 이동에 대한 모습은 ‘구니마기(國覓)’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즉 산상강림을 통해 구름으로 이어진 곳을 걸다가 ‘아타’의 나가야(長屋) 笠沙의 앞바다에 도착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고토카쓰쿠니카쓰나가사’라는 사람을 만나 정착하는 과정을 매우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천손강림전승은 원래 ‘아타쓰히메’와의 결혼담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별개전승이던 것이 ‘아타’로 이동한 천손의 신성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삽입된 특수한 전승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日本書紀』와 유사전승인 『古事記』의 천손강림신화에는 ‘니니기’의 강림시 수반신으로 함께 내려오는 소위 ‘5伴緒’라고 하는 5부 족신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신들은 스사노오의 악행으로 인해 아마테라스가 천석굴에 칩거한다는 소위 ‘천석굴은거신화’에도 등장한다. 신화학자 구라노켄지(倉野憲司)는 이 전승에 표기되어 있는 씨족들의 조상신의 유래를 설명한 ‘주기(注記)’에 주목하여 『古事記』의 표기원칙에 따르면 조상신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반드시 ‘주기’를 다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5伴緒’의 경우에는 첫 등장의 ‘천석굴은거신화’에는 ‘주기’가 달려 있지 않고 오히려 뒤에 오는 ‘천손강림’에만 ‘주기’가 달려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 지적하고 이는 양자 사이에 ‘이즈모신화’가 삽입된 결과로 인한 것이며 원래 두 전승은 일체였다.<sup>17)</sup>고 주장한 것처럼 ‘천손강림’전승은 애당초 소위 ‘히무카신화’와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전승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간적인 측면

17) 倉野憲司, 『古事記全註釈(第四卷)』, 三省堂, 1977, p.171.

에서 볼 때도 신대 제9단은 ‘이즈모’에서의 국토평정 및 양도교섭, ‘히무카’로의 강림, 그리고 ‘아타’에서 결혼이라는 3지역의 공간적 이동경로를 보여주며 3지역의 통합 전승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日本書紀』신대 제9단에 등장하는 천강지 ‘히무카’는 천손의 강림지일 뿐 정착지역으로 보기 힘들다. 그리고 ‘구니마기’라는 이동과정을 통해 아타지역에 정착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신화체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강림지로 묘사된 ‘히무카’와 정착지인 ‘아타’를 동일 지역으로 보고 또 이를 ‘히무카신화권’으로 묶어 놓고 강림지를 남부규슈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천손강림신화는 비교신화학에서 보더라도 그 유형이 이후에 전개되는 ‘우미사치’ ‘야마사치’ 형제이야기의 신화와는 성격이 다른 북방계유형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런 성격을 달리하는 두 전승이 지금까지 강림지와 아타를 동일 장소로 보고 이를 ‘히무카신화’에 묶어놓고 두 신화를 임의적으로 결합시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히무카’도 인위적으로 남부규슈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古事記』와 비교해 보자. 상기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古事記』는 『日本書紀』의 본문과는 입장이 다르다. 신화의 전개와 구성은 『日本書紀』 본문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日本書紀』신대 제9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타’의 도착이야기이나 거기에서 인도역 할을 맡는 ‘고토카쓰쿠니가쓰나가사’를 만나는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日本書紀』신대 제9단 ‘일서’제1과 공통점을 갖는 구조이다. 이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일서’제1이 유사해보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일서’제1은 ‘아타’도착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 없이 천손이 강림하는 것으로 끝난 것에 비해 『古事記』는 보편적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강림지도 두 전승은 ‘쓰쿠시 히무카’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IV. 강림지논쟁과 ‘韓國’

일본신화의 소위 ‘강림지논쟁’이란 문헌상에 나타난 천손 ‘니니기’가 지상으로 강림한 곳이자 ‘히무카신화’의 중심무대이기도 한 ‘히무카(日向)’가 과연 어디를 지칭하는가 하는 일본신화의 성역논쟁을 말한다. 논쟁은 크게 보통명사설과 고유명사설로 구분되는데 먼저 보통명사설은 ‘히무카’라는 곳을 지명으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태양이 향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이다. 스가노 마사오(菅野雅雄)가 그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日本書紀』에 ‘히무카(日向)國’명의 유래를 ‘곧바로 해가 뜨는 쪽에 향하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이코(景行)천황 기사<sup>18)</sup>, 그리고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해가 향하는 곳’이라는 해석이 『다스타(竜田)風神祭詞』나 『만요슈(万葉集)』에도 보이는 등 상대 일본인이 해가 비추는 곳을 칭송하는 문헌상의 사례를 들어 이는 후세에 합리적인 해석에 기초해 만들어진 지명기원설화로 보고 ‘히무카(日向)’는 규슈에서만 지칭하던 명칭이 아니라 중앙의 왕도에서 부르던 호칭임과 동시에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태양의 자식으로 등장하므로 이 ‘니니기’를 하나의 상징적인 태양으로 보고 서방의 벽지 ‘히무카’에 태양의 모습으로 강림해야 했던 ‘일자(日子)신앙’의 논리와 구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9)</sup>

한편 고유명사설은 ‘히무카’를 실재했던 지명으로 보는 견해로 역시 에도(江戸)시대 국학자였던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제기한 데서 비롯된다. 노리나가는 ‘히무카’에 대해 두 곳의 후보지를 거론하면서 “기리시마산(霧嶋山)도 필히 神代の 유적이라 들리고 또 우스키군(白杵郡)도 고서 등에 보여 지금도 정확하게 다카치호(高千穂)로 부르고 있으니 어느 쪽을 강림지로 정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sup>20)</sup>고 하여 후세사가들에게 논쟁의 단서를 제공

18) 『日本書紀(上)』, 앞의 책, p.293의 본문「十七年春三月戊戌朔己酉、幸子湯泉、遊于丹裳小野。時東望之、謂左右曰、是國也直向於日出方。故號其國曰日向也。」(下略) 참조.

19) 菅野雅雄, 『古事記構想の研究』, 桜楓社, 1993, pp.119~122.

20) 本居宣長, 『古事記伝(第一)』, 吉川弘文館, 1911, pp.900~901.

했다. 노리나가가 제시한 두 곳은 모두 고대 ‘히무카국’ 즉 지금의 남부규슈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통하지만 전자는 지금의 가고시마(鹿兒島)현 남단에 있는 기리시마산을, 후자는 지금의 미야자키(宮崎)현으로 설정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보면 크게 떨어진 곳이다. 그 후 일본신화 연구를 중심으로 ‘国学’이 성행했던 에도시대를 거쳐 후세의 주석자들은 노리나가의 2가지 설을 계승하듯 지금까지 논쟁은 진행 중에 있고 또 최근에 출판된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주석서를 보더라도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두 설을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그 중 먼저 미야자키현의 우스키군(臼杵郡)설 지지자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노리나가도 언급했던 「히무카(日向) 國風土記」 逸文에 나오는 “니니기가 우스키郡의 二上峯에 내려왔지만 주변에 어두워 비어삭을 사방에 뿌리자 하늘이 밝아지고 해와 달이 빛나기 시작하여 그 땅을 ‘다카치호(高千穂)’라 하고 나중에 ‘지호(智鋪)’로 개칭되었다.”고 하는 기사<sup>21)</sup>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지만 『古事記』의 주석자로 저명한 구라노켄지(倉野憲司)는 기사의 내용은 ‘지호’라는 지명유래답일 뿐 ‘다카치호’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히무카(日向) 國風土記」 逸文은 헤이안(平安)시대 이후의 것이므로 오히려 『日本書紀』 기사를 인용했을 가능성도 지적<sup>22)</sup>하며 우스키설을 일축하고 있다. 또 한국의 일본신화학자 노성환도 일본 내의 강림지 논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에도시대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문헌상 현재 가고시마 남단에 해당되는 가사사의 앞바다로 향하는 경로로 볼 때 우스키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점, 또 지금까지 천황가의 발상지를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우스키설의 약점을 제시하고 있다.<sup>23)</sup>

두 번째로 강림지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지금의 가고시마현 남단에 해당하는 기리시마산설이다. 기리시마산설은 『日本書紀』의 ‘본문’과 ‘일서’에 보이는 ‘소(叢)’라는 글자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소’는 ‘구마소(熊襲) 國’의

21) 植垣節也 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風土記』, 小学館, 2003, p.558.

22) 倉野憲司, 앞의 책, p.175.

23) 노성환, 『일본신화와 고대한국』, 민속원, 2010, pp.97~98.

‘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쓰마(薩摩)國風土記」逸文에 ‘히무카(日向)國 소오(嘯啖)군 다카치호(高千穂)’라는 기록이 있다는 점, 그리고 『日本書紀』에 천손이 강림한 후 종착지점에 해당하는 ‘아타’라는 곳은 고대 사쓰마(薩摩)國 아타(阿多)郡의 ‘아타’인 점<sup>24)</sup>도 기리시마산설을 강하게 지지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노성환도 기리시마산 정상에 거꾸로 박혀 있는 천역모(天逆矛)를 비롯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가고시마출신의 정부고관들에 의한 성지조성 노력, 그리고 근처에 ‘韓國’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산악명과 신사 등의 존재가 기리시마산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sup>25)</sup> 이처럼 현재 강림지를 실제 지명으로 비정할 경우 일본의 학계에서는 기리시마산(霧島山) 다카치호說의 지지자가 많고 실제 논문 수를 비교해 보아도 기리시마(霧島) 高千穂說의 支持者가 많다. 그렇다면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강림지를 <표 2> 를 통해 좀더 세부적으로 재검토해보자.

<표 2> 『古事記』『日本書紀』의 강림지 비교

전승요소		古事記	日本書紀				
			本文	一書			
				1	2	4	6
강림지		竺紫日向之高千穂之久士布流多氣	日向襲之高千穂峯	築紫日向之高千穂觸之峯	日向穂日之高千穂之峯	日向襲之高千穂穂日二上峯	日向襲之高千穂添山峯
공동	日向	○	○	○	○	○	○
	高千穂	○	○	○	○	○	○
특수	襲	×	○	×	×	○	○
	築紫	○	×	○	×	×	×

상기 <표2>를 보면 강림지를 소개하는 곳은 『古事記』를 포함하여 모두 6가지 전승이 존재한다. 그 중 공통분모인 ‘히무카’와 ‘다카치호’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모든 전승에서 공통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강림지의 기본

24) 本居宣長, 앞의 책, p.909.

25) 노성환, 앞의 책, pp.101~106.

설정은 ‘히무카’의 ‘다카치호’라는 산봉우리에 천손이 강림했다는 것을 문헌 편찬자들이 갖는 공통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가지의 강림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단순히 ‘히무카’로 표기된 경우(‘일서’ 제2)를 제외하고 2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히무카’ 앞에 ‘쓰쿠시’라는 별도의 지명이 관사처럼 붙은 경우(『古事記』와 ‘일서’제1)와 두 번째로는 ‘히무카’라는 지명 뒤에 ‘소(叢)’라는 지명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日本書紀』‘본문’, ‘일서’제4 및 제6)이다. 그리고 <표2>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특수요소로 『古事記』의 ‘韓國’을 향하는 곳이라는 말이 부가된 점도 강림지 논쟁에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먼저 ‘소’가 들어간 경우를 살펴보자. 제9단의 ‘본문’과 ‘일서’의 전체적 흐름을 소개한 제2장의 <표 1>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소’가 삽입된 곳은 천손이 강림 후 ‘아타’로의 이동과 ‘고토카쓰쿠니카쓰나가사’를 만나 정착한 기사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소’가 부가된 ‘히무카’는 천손의 ‘아타’이동을 전제로 한 표기라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 ‘아타’로의 이동 기사나 ‘고토카쓰쿠니카쓰’와의 만남기사가 없는 『古事記』와 ‘일서’제1의 기사에는 ‘소’라는 지명은 없는 대신 공통적으로 ‘쓰쿠시’가 앞에 붙어 있다. 특히 ‘일서’제1은 천손의 지상강림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타’로 이동하거나 거기에서 결혼하고 후손을 낳는다는 제9단의 보편적 설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는 두 가지 관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즉 ‘소’가 붙은 경우는 천손의 ‘아타’이동과 관계가 깊고 또 ‘아타’는 지금의 남부규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림지를 ‘히무카국’ 즉 남부규슈로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쓰쿠시 히무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쓰쿠시’라는 지명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의 지금의 규슈(九州)섬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로는 지금의 북부규슈에 해당하는 후쿠오카(福岡)현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sup>26)</sup> ‘쓰쿠시’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문제는 강림지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림지의 남부규슈설을 지지하는 대부

26) 倉野憲司, 「筑紫·熊襲·日向」, 『古事記年報(vol.15)』, 古事記学会, 1972, p.5.



분의 일본신화학자들은 ‘쓰쿠시’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쓰쿠시 히무카’를 쓰쿠시섬의 ‘히무카국’이라는 통상적인 해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나 ‘쓰쿠시 히무카’처럼 ‘쓰쿠시’ 다음에 고대지방국명을 붙인 예는 양 문헌에서 ‘히무카’를 제외하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쓰쿠시 히무카’라는 지명은 천손의 강림지 외에 이자나기(伊邪那岐命)의 목욕재계신화에서도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승에 따르면 요미노쿠니(黃泉國)에서 묻혀 온 더러운 때를 씻어내기 위해 이자나기가 ‘미소기(禊)’라는 목욕의식을 거행한 장소를 『古事記』에서는 ‘쓰쿠시(쓰紫) 히무카(日向)의 다치바나(橋) 오도(小門)의 아와키하라(阿波岐原)’<sup>27)</sup>라는 매우 긴 지명으로 소개하고 있고 유사이전인 『日本書紀』도 ‘일서’제 6에서 ‘쓰쿠시 히무카의 오도의 다치바나 아와키하라’라 기술하고 있다.<sup>28)</sup> 이 과정을 통해 일본신화의 지고신 아마테라스(天照大御神)를 비롯한 3神을 얻는다는 점에서 ‘쓰쿠시 히무카’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미소기를 거행한 ‘쓰쿠시 히무카(筑紫日向)’를 강림지와 마찬가지로 ‘히무카신화’의 출발점으로 연장하여 지금의 남부규슈 미야자키(宮崎)県 부근의 오요도강 북쪽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sup>29)</sup> 이렇게 보는 근거로는 『日本書紀』의 진구(神功)기사에도 동일한 ‘다치바나 오도’라는 지명과 함께 그 앞에 ‘히무카(日向)국’이라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sup>30)</sup> 그런데 이 기사에서 진구황후가 신내림을 받는 4신 중 마지막에 출현하는 ‘우와쓰쓰오(表筒男)·‘나카쓰쓰오(中筒

27) 青木和夫의 3인, 『日本思想大系·古事記』, 岩波書店, 1983, p.36의 본문 <是以伊邪那伎大神詔, 吾者到於伊那志許米上志許米岐【此九字以音】穢國而在邪理。【此二字以音】故, 吾者為御身之禊而, 到坐竺紫日向之橋小門之阿波岐【此三字以音】原而, 禊祓也。>참조

28) 『日本書紀(上)』, 앞의 책, p.95의 의 본문 <伊奘諾尊既還, 乃追悔之日, 吾前到於不須也兇目汗穢之處。故當滌去吾身之濁穢, 則往至築紫日向小戶橋之櫛原, 而祓除焉。>참조

29) 西宮一民, 『新潮日本古典集成·古事記』, 新潮社, 1979, p.40.

30) 『日本書紀(上)』, 앞의 책, p.333의 본문 <○三月壬申朔, 皇后選吉日, 入齋宮, 親為神王。則命武內宿禰令撫琴。喚中臣烏賊津使主, 為審神者。因以千繪高繪, 置琴頭尾, 而請日, 先日教天皇者誰神也。願欲知其名。逮于七日七夜, 乃答日, (中略)則對日, 於日向國橋小門之水底所居, 而水葉稚之出居神, 名表筒男·中筒男·底筒男神之有也。>

男)’·‘소코쓰쓰오(底筒男)’神은 스미요시(住吉) 3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들이다. 스미요시 3신은 지금도 스미요시 신사에서 제신으로 모셔져 있고 이 신사는 일본전국에 2,000곳 이상 분포되어 있으면서 주로 항해관계자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항해의 안전과 풍어기원을 위해 모시는 신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 총본궁(總本宮)은 오사카(大阪)시에 위치하고 있는 스미요시대사(住吉大社)로 헤이안(平安)시대에 편찬된『엔기시키(延喜式)』에 따르면 같은 이름의 신사가 시모노세키(下関),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이키(壱岐), 쓰시마(対馬)에 분포되어 있었던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오사카만(灣)에서 세토(瀬戸)내해를 경유하여 한반도로 통하는 해상항로이자 북부규슈와 한반도를 잇는 가장 중요한 고통요충지로 정규 해상교통로로 보면 유일한 길이라 볼 수 있다. 다나카 타카시(田中卓)는 일찍이 이 신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원래 북부규슈를 무대로 활약한 쓰모리(津守)씨족이 해상 수호신으로 모시던 제신이었던 것을 밝힌 바 있으며<sup>31)</sup> 게다가 주아이(仲哀) 천황과 진구황후의 활동무대가 주로 아나토(穴門)를 비롯 지금의 후쿠이(福井)현과 아마구치(山口)현, 그리고 후쿠오카현 일대인 서일본과 북부규슈였다는 점, 그리고 신탁(神託)과정에서 스미요시 3신의 계시가 구마소(熊襲)정벌 보다는 신라침략을 권고한 점은 이 신의 근거지가 북부규슈에서 세토내해를 잇는 바다와 관계가 깊은 신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히무카’를 남부규슈로 보는 것은 『日本書紀』만의 표기라 할 수 있는 ‘히무카국’에 너무 집착한 해석이 아닐까? 또 筑紫→日向→小戸→橘→穗原에서 보듯이 큰 지명에서 작은 지명의 순서로 나열되는 표기방식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다른 기사에서는 보기 드문 극히 이례적인 표기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신화적사고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따라서 ‘히무카’를 남부규슈의 히무카국으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쓰쿠시국’의 야침해저녁 해가 잘 드는 곳이라는 태양신 숭배사상을 반영한 지명으로써 거기에 굴과 아와키라는 식물이 자라는 해변가를 성지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해석<sup>32)</sup>

31) 田中卓, 「神代史に現れたる海神の研究」, 『神道史研究(第五卷 第六号)』, 神道史学会, 1957. p.66.

32) 青木和夫의 3인, 앞의 책, p.36

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쓰쿠시(筑紫)’는 좁은 의미인 북부규슈의 ‘쓰쿠시(筑紫)국’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천손강림신화가 북방계신화의 전형으로 본다면 강림지 또한 한국과 가까운 북부규슈로 설정하는 것이 신화의 흐름에 어울릴 것이다.

다음으로는 ‘韓國’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古事記』의 천손강림신화에서는 천손이 ‘쓰쿠시 히무카’로 강림 후 강림지에 대한 감상이라고 해야 할지 평가라고 할지 “이 땅은 ‘韓國’에 향하고 ‘가사사(笠沙)’의 해안가를 곧바로 통과하며 아침 해가 곧바로 비추는 나라, 석양이 빛나는 나라이다. 그래서 이 땅은 吉地이다.”<sup>33)</sup>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다. 이는 『日本書紀』에서는 볼 수 없는 『古事記』만의 독자적인 기술방식이다. ‘韓國’을 향하는 곳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어찌 보면 지리적인 확실성을 부여한 셈이다.

하지만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韓’이란 말은 借字로 ‘공허(空虛)한 나라’를 의미하는 『日本書紀』에 보이는 ‘空國’으로 해석하며<sup>34)</sup> 애써 한국과의 관계를 무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센다 미노루(千田稔)가 지금까지의 일본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천손강림지에 한국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여 신화의 공간을 한반도에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애써 한국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등<sup>35)</sup> ‘히무카’의 남부규슈지지자들은 한반도라는 의미로 상정하기 보다는 강

33) 앞의 책, p.128.의 본문 <故爾詔天津日子番能迹迹芸命而、離天之石位、押分天之八重多那。云而、伊都能知和岐知和岐豆、於天浮橋、宇岐士摩理、蘇理多多斯豆、天降坐于笠紫日向之高千穗之久士布流多氣。(中略)於是詔之、此地者、向韓國、真來通笠沙之御前而、朝日之直刺國、夕日之日照國也。故、此地甚吉地詔而、於底津石根宮柱布斗斯理、於高天原氷椽多迦斯理而坐也。>참조

34)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자신의 저서(『古事記傳(第一)』), 앞의 책, p.908~909)에서 “사물의 속이 공허하고 내용이 없는 것을 ‘가라(加良)’라고 하는데 ‘가라(殼)’도 같은 뜻이다. 한편 서기의 ‘空國’은 예부터 ‘무나구니’라 읽었지만 ‘무나소히구니’라고 할 때는 ‘空’을 사용하지 않고 ‘胸’을 쓴 것을 감안하며 ‘가라구니’로 읽어야 한다. 또 친강지에 묘사되어 있는 ‘向韓國’의 ‘向’이라는 한자는 ‘宍’자의 오기로 보아야 하며 또 ‘囊’은 탈자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등 한국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35) 千田稔, 「記紀神話における「日向」」, 『研究年報(36号)』, 奈良女子大学文学部, 1992. pp.31~33.

림지 인근에 있는 ‘韓國岳’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古事記』의 먼밀한 주석자 구라노겐지(倉野憲司)는 『日本書紀』의 ‘일서’에 간헐적으로 보이는 ‘韓’이 붙어 있는 합성어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노리나가의 견해는 오류임을 지적하고 ‘韓國’은 문자 그대로 ‘朝鮮’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 표현은 한국과 상대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sup>36)</sup>하면서도 역시 ‘한국’은 보이지 않아도 한국을 의식한 말이라는 여운을 남긴 채 강림지의 남부규슈설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古事記』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지리적으로 천손의 강림은 한반도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北九州에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일본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古事記』의 ‘韓國’이라는 지명을 한국과 가까운 곳 또는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해하는 곳으로 여겨 통설인 남부규슈설을 반박하고 북부규슈에서 구하는 학설이 없는 것도 아니다. 먼저 고고학자 하라다 다이로쿠(原田大六)는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강림지를 후쿠오카현에 있는 ‘다카스(高祖)山’으로 비정하여 ‘히무카’의 북부규슈설을 제기했고<sup>37)</sup> 고대 규슈왕국을 주창한 후루타 다케히코(古田武彦)도 다카스산설을 지지하면서 ‘쓰쿠시(筑紫)국 히무카라’는 말이 실제로 「히타치(常陸)국風土記」구지(久慈)郡 오타(太田)郷 기사 중 나가하타베(長幡部)신사의 연기(緣起)에 등장하기 때문에 ‘쓰쿠시 히무카’의 ‘쓰쿠시’는 규슈섬이 아닌 ‘쓰쿠시국’이며 이는 북부규슈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sup>38)</sup> 또 재일 한국인 사학자 김달수(金達壽)도 한반도 남부의 주민이 규슈를 거쳐 일본열도에 이주한 소위 도래인들의 옛 기억이 천손강림신화에 반영된 발상이 그 배경에 있는 표현<sup>39)</sup>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노리나가의 ‘다카치호(高千穂) 이동설’<sup>40)</sup>을 재평가한 고대학자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의 견해가 눈에 띈다.

36) 倉野憲司, 앞의 책, p.180.

37) 原田大六, 『實在した神話』, 学生社, 1966, p.142.

38) 古田武彦, 『盗まれた神話』, 朝日新聞社, 1974, p.192.

39) 金達壽, 『日本古代史と朝鮮』, 講談社, 1997. pp.275~276.

40) 노리나가는 별도의 장(앞의 책, pp.1020~1021)에서 “같은 이름의 高千穂峯이 白杵郡과 霧嶋山에 있는 것은 皇孫命 처음으로 天降할 때 먼저 둘 중 한쪽의 高千穂峯에 내려와 거기에서 또 하나의 高千穂에 移幸한 것이다. 그 순서의

그는 노리나가의 이동설을 토대로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 ‘니니기’가 벼농사 기술을 갖고 가사사(笠沙)의 미사키(御崎)까지 상륙했지만 ‘시라스台’는 벼농사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야요이(弥生)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우스키(白杵)郡에 왔다가 다시 기리시마(霧島)로 이동한 것으로 보았다.<sup>41)</sup> 노리나가의 직관적 해석을 우메하라는 지리적, 고고학적 방법을 가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통설인 남부규슈를 지지하는 점은 통설과 다름이 없다. 물론 강림지 이동설은 일찍이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沢庄三郎)도 제기한 바 있는데 그는 천손의 강림은 북방에서 ‘쓰쿠시’의 고봉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쪽의 기리시마로 도달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sup>42)</sup>

그렇다면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6가지의 전승에 나타난 강림지에 대한 두 가지 전승은 천손의 이동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 ‘韓國’이라는 표기에서 『古事記』의 기술상 강림지는 현실적인 지명으로 놓고 볼 때 ‘韓國’ 즉 한반도를 향하고 한반도를 대면한 땅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쓰쿠시 히무카’라는 표현은 거기에 북규슈로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쓰쿠시 히무카’가 등장하는 기사에 공통적으로 ‘아타’로의 이동이 없는 것도 강림지를 북부규슈로 비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앞서도 강조했듯이 ‘소’가 들어간 ‘히무카’로 이는 ‘아타’로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표기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양 문헌에는 강림지에 대한 두 가지 소전이 존재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古事記』에는 천손 강림의 원 전승을 바탕으로 북규슈에서 ‘아타’ 즉 남부규슈로 이동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남부규슈를 복속한 것을 계기로 ‘소’를 삽입시켜 최종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앞서 인용한 ‘히타치국 風土記’의 여신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즉 ‘히타치’의 ‘오타’에 직접 내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쓰쿠시국 히무카’에 내려가 ‘미노’를

先後는 알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가사사(笠沙)의 해안가로 머물렀다는 행로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先着한 곳은 白杵郡 高千穂山이며 거기에서 霧嶋山으로 遷坐한 후 산을 내려와 空國을 行去하고 笠沙御崎에 도달한 것이라 하여 高千穂移動說을 주장하기도 했다.

41) 梅原猛, 『天皇家の“ふるさと”日向をゆく』, 新潮社, 2000, pp.34-36.

42) 金沢庄三郎, 『日鮮同祖論』, 成甲書房, 1978, p.243.

거쳐 ‘오타’에 최종 도착한 것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천손 ‘니니기’의 강림은 어느 신화체계 내에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신화전승이 신화의 장이 확대됨에 따라 강림지도 변천하고 또 각 시점에서의 전승이 양 문헌을 포함 「風土記」에도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43)</sup> 이처럼 천손은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이동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강림지가 남부규슈가 아니라 원래는 북부규슈였고 거기서 아타로 이동하여 아타를 복속한 후에 정착된 천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日本書紀』에서 의도한 강림지는 북부규슈에서 규슈전체로 확대됨으로써 점차 남부규슈로 이동한 과정을 그린 전승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최남단 기리시마에 도달한 것은 아마 ‘쓰쿠시’가 북부규슈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에서 규슈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승격되었을 때 다시 말해 규슈전체의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따라서 ‘쓰쿠시 히무카’로의 강림을 1차요소로 하고 천손이 ‘아타’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그 다음의 주인공인 야마사치와 우미사치이야기가 2차적 요소로 하여 『日本書紀』본문에 나타난 표기이며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전개와 공간의 이동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古事記』의 강림지는 ‘韓國’을 표기함으로써 강림지의 원점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남부진출의 출발점을 기억함과 동시에 한반도에 서 건너 간 이주민세력의 원향에 대한 흔적을 남겨놓은 지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 『古事記』 및 『日本書紀』에 나타난 신화구성의 가장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히무카신화’와 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승요소인 천손강림 신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강림지의 이중구조와 고대 한국과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양 문헌의 신대(神代)에 국한할 경우 한국과 관련된 용

43) 荒川紘, 『古代日本人の宇宙觀』, 海鳴社, 1981, p.30.

어나 전승을 공통적으로 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각 문헌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독자적인 전승요소에는 고대 한국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은 분명 남아있다. 『古事記』의 천손강림신화에 등장하는 ‘韓國’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양 문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천손강림신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의 학계에서는 ‘히무카신화’의 출발점으로 인식해지만 문헌의 면밀한 분석결과 천손강림은 남방형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히무카신화’와는 별개의 북방형 신화요소로 볼 때 이 전승은 남부규슈지역의 복속과 함께 ‘히무카’라는 지명적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히무카신화’속으로 편입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양 문헌에 강림지로 등장하는 ‘히무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소’가 붙은 경우는 천손족의 남부규슈지역 복속을 상징하는 천손의 ‘아타’진출을 염두에 둔 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으며 『日本書紀』 ‘본문’은 그러한 인식이 투영된 편찬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강림지를 지금의 남부규슈로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쓰쿠시’가 붙은 경우는 천손의 ‘아타’진출과 상관없는 천손강림의 초기적 전승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古事記』는 『日本書紀』 제9단 ‘일서’ 제1의 기술방식을 존중하여 ‘아타’이동경로는 생략한 채 남부지역 복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키고 있다. 이처럼 천손강림신화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신화전승과 마찬가지로 이 전승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전간의 통합을 통해 여러 형태로 변용되어 오다가 『日本書紀』 본문과 『古事記』의 전승형태로 체계화 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쓰쿠시 히무카’로의 강림을 1차요소로 하고 천손이 아타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그 다음의 주인공인 야마사치와 우미사치이야기가 2차적요소로 하여 거기에 상당한 시간적 전개와 공간의 이동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古事記』는 강림지에 ‘韓國’을 삽입시킴으로써 강림지를 북부규슈로 설정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과 함께 그 신화의 원형이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이것은 천손강림신화의 사상이 다른 여러 가지 문물 및 인적교류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대한해협을 거쳐 북부규슈로 전한 경로의 의미를 표시한 것이다. 신대사의

편찬이 당시 지식인의 탁상기술에 의해 탄생한 신화 및 전설이었다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韓國’이 시사하는 것은 아주 먼 옛날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한 한국계 이주민들이 신화 작성에 도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는 흔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日本書紀』에는 천손강림사상을 도입하면서도 강림지를 남부규슈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영향을 애써 배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반면 『古事記』는 오히려 천손족의 이동경로에 이들의 활약상을 중시하고 나아가 ‘韓國’을 향하는 곳이라 이를 吉地라 표현함으로써 천손의 이동을 함께한 한국계이주민들의 원향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남기고자 한 흔적을 의도적으로 담은 것으로 이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편집의도와 성격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 말 할 수 있다.

## ❖ 참 고 문 헌

- 本居宣長, 『古事記伝(第一)』, 吉川弘文館, 1911.  
秋本吉郎, 『風土記』, 岩波書店. 1958.  
日本古典文学大系1, 『古事記 祝詞』, 岩波書店. 1980.  
西宮一民, 『新潮日本古典集成·古事記』, 新潮社, 1979.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 『日本書紀(上)』, 岩波書店. 1979.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1979.  
津田左右吉, 『日本古典の研究(上)』, 岩波書店, 1948.  
松村武雄, 『日本神話の研究(第三卷)』, 培風館, 1955.  
松村武雄, 『日本神話の研究(第一卷)』, 培風館, 1958.  
原田大六, 『實在した神話』, 学生社, 1966.  
松前健, 『日本神話の形成』, 塙書房, 1970.  
\_\_\_\_\_, 「日本神話と朝鮮」, 『日本神話研究1』学生社. 1977.  
\_\_\_\_\_, 『日本神話の謎』, 大和書房, 1985.  
西郷信綱, 『古事記の世界』, 岩波書店, 1971.



- 古田武彦, 『盗まれた神話』, 朝日新聞社, 1974.
- 三品彰英, 『日本神話論(三品彰英論文集 第一卷)』, 平凡社, 1980.
- 倉野憲司, 『古事記全註釈(第三卷)』, 三省堂, 1976.
- \_\_\_\_\_, 『古事記全註釈(第四卷)』, 三省堂, 1977.
- 金沢庄三郎, 『日鮮同祖論』, 成甲書房, 1978.
- 荒川紘, 『古代日本人の宇宙觀』, 海鳴社, 1981.
- 中西進, 『神話力(日本神話を創造するもの)』, 桜楓社, 1991.
- 菅野雅雄, 『古事記構想の研究』, 桜楓社, 1993.
- 神野志隆光, 『古事記の世界觀』, 吉川弘文館, 1995.
- 金達寿, 『日本古代史と朝鮮』, 講談社, 1997.
- 梅原猛, 『天皇家の“ふるさと”日向をゆく』, 新潮社, 2000.
- 植垣節也, 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風土記』, 小学館, 2003.
- 노성환, 『일본신화와 고대한국』, 민속원, 2010.
- 田中卓, 「神代史に現れたる海神の研究」, 『神道史研究(第五卷 第六号)』, 神道史学会, 1957.
- 倉野憲司, 「筑紫・熊襲・日向」, 『古事記年報(vol.15)』, 古事記学会, 1972.
- 吉井巖, 「日向神話」, 『国文学(第23卷14号)』, 学灯社, 1978.
- 千田稔, 「記紀神話における「日向」」, 『研究年報(36号)』, 奈良女子大学文学部, 1992.
- 毛利正守, 「『日本書紀』「神代」」, 『国文学(第39卷6号)』, 学灯社, 1994.
- 李昌秀, 「『古事記』및 『日本書紀』에 나타난 韓國像」, 『日本思想』第17号, 韓國日本思想史学会, 2009.

❖ ABSTRACT

A study of 'image of Korea' in myth of 'Kojiki' & 'Nihonshoki'  
- Focused on 'Kara' in 'the myth of Tensonkorin'

Chang-soo Lee

This paper is written in "Kojiki" and "Nihonshoki" chronicles of the most important in the configuration of the myth known as the 'the myth of Himuka' and the myth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ransmission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the myth of Tensonkorin'. There is dual structure and the two appeared in the literatu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ried to consider. Korea in terms of both tradition and the literature is limited. However, each appeared sporadically in the literature in their own tradition, elements of ancient Korea shows signs of a glimpse of the image. It appeared that 'the myth of Tensonkorin' in 'Kojiki' 'Kara' is said. They also commonly appear in the literature about the cheonsongangrimsinhwae academia in Japan until now, the so-called 'Himuro car myth' has been recognized as a starting point. However, a closer analysis of the literature focused on factors that cheonsongangrindameun xi 'Himuro car myth differs from. Sora can see that John bukbanghyeong tradition. The myth of the southern Kyushu region and annexed 'the myth of Himuka' that can tell incorporated into.

---

Key Words

고사기, 일본서기, 한국, 히무카, 천손강림, 쓰쿠시, 니니기  
kojiki, Nihonshoki, karanokuni, himuka, tensonkorin, tsukushi

논문접수일: 2011. 01. 22.

심사완료일: 2011. 02. 26

게재확정일: 2011. 03. 10